

제2회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 종합대상 및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12월 7일 매경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 시상식에서 석관동 한국종합예술학교(현 장소장·장덕배 부장)가 종합대상(건설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됐다.

매일경제신문사, 매일경제TV,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건설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이 상은 선진 건설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작품과 건설인을 선정해서 주는 상으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격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첨단기술·도시기능, 환경친화, 설계·디자인, 랜드마크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 고려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산 1-5번지에 위치한 대지면적 13,000평, 연면적 17,000평의 대규모의 이 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창작예술학교 이미지와 부합되는 차별화된 외관과,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위한 기능별 특성별 공간배치가 높이 평가됐다.

특히 마감 재료를 따로 시공하지 않고 거푸집 탈형 후 콘크리트면을 최종 마감으로 하는 노출 콘크리트 마감 공법은 천연적인 질감과 자연스러운 멋이 연출돼 예술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2가지로 전환되는 가변무대로 구성된 518석 규모의 실험극장은 오페라 공연까지 가능하며, 323석의 국악 전용극장은 라이브 공연에 적합하도록 특수 음향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스튜디오, 실습실, 연극자료실, 교수실, 연구실, 강의실 등 크고

작은 공간들이 모여 있는 강의동은 4개 동이 유려한 곡면 지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교수 영역과 강의·실습 영역을 분리하는 등 공간 배치를 최적화했다.

한편 11월 23일에 있었던 입주식 행사에서는 대규모 예술학교 시설을 수려한 외관과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통해 준공함으로써 예술 인재 양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장덕배 소장을 비롯한 김한중 부장, 이경희 차장, 김진수 차장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아파트 디자인 저작권 13건 취득

쌍용건설은 최근 지역·연령·평형별로 아파트의 외관과 평면, 공용공간 설계를 다르게 하는 디자인 저작권을 동시에 13건이나 취득했다.

지금까지 특정 건설사만의 통일된 외관과 평면에 대한 개발은 있었지만 한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임에도 지역과 입주민의 연령, 소득수준까지 고려해서 외관과 평면을 모두 다르게 디자인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서울과 고가주택밀집지역에는 40~50대 상위 소득층을 대상으로 고전적인 장식과 기둥, 중후한 느낌의 석재로 마감된 외관을 갖춘 클래식(Classic) 타입 아파트가 시공된다.

수도권과 지방도시에는 30~40대 중산층을 대상으로 PC와 RC공법으로 깔끔한 입면과 절제된 선, 면, 색이 입체적으로 부각되는 모던(Modern) 타입,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에는 30대 중상층을 대상으로 노출된 구조체와 프레임, 상층부 구조물 등을 활용해 입체감을 강조한 하이테크(Hi-Tech) 타입의 아파트가 시공될 예정이다.

또한 평면은 4~4.5bay 설계와 양면 개방형 거실, 수납공간 극

대화, 주방과 거실을 중심으로 자녀 공간과의 분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34평형 2타입, 양면 개방형 킷마루식 설계를 통해 맞춤형이 가능한 거실과 현관에서 거실까지 연결되는 갤러리 월 (Gallery Wall),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켓 발코니 등을 설치한 48평형 2타입을 등록했다.

또한 58평형은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갤러리 월과 와이드 오픈 뷰(Wide Open View) 설계, 주부를 위한 복합생활 공간 구성, 양면 개방형 킷마루식 거실, 다용도 포켓 발코니 등이 특징인 2타입의 평면과 3세대 분리형 평면이 특징인 69평형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동의 주출입구에 2층 공간을 설계함으로써 단지 중앙이나 지하에 몰려있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층고를 높여 호텔 로비와 같이 웅장한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도 등록했다.

건설사업관리(CM) 능력 건설업체부문 2위 선정

쌍용건설이 8월 31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6년도 건설사업관리(CM) 능력 평가에서 건설업체부문 2위를 차지했다.

건설업체 15개사,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 82개사 등 총 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쌍용건설은 2006년 CM 실적 39억 4천만 원을 기록함으로써 순위가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이는 지난 97년 CM팀을 조직해 전문가 양성 및 내부역량 강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쌍용건설은 2002년부터 인도 제3 고속도로, 부천 테크노파크 3차 공사 등 총 75억 8천만원의 CM 실적과 32억 9천만원의 CM 유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건설산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란 발주자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과정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 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선진 관리기법이다.

동남권 유통단지 이주전문사가 다블럭 터키공사 수주

쌍용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9월 26일 SH공사(옛 서울특별시 시도시개발공사)가 터키로 발주한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전문사가 다블럭 공사를 2,700억원(쌍용 지분 30%, 약 810억원)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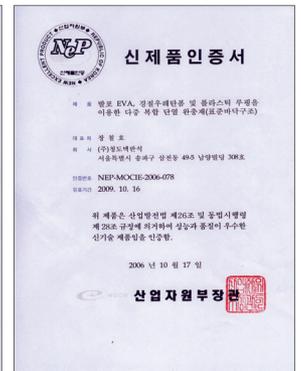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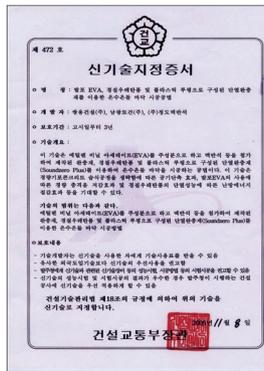


주했다. 이 공사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3천 여 평 규모로 공구, 철물, 배관, 냉동, 배어링, 미싱, 소방안전보호구 업종 상가 총 1,297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06년 10월 착공해 2008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쌍용건설은 국내 건설회사 중 유일하게 올해 서울시가 발주한 초대형 건축 터키 프로젝트인 서울시 청사와 동남권유통단지를 연이어 수주하는 진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청계천에서 이전하는 공구상가를 집중 수용하게 될 동남권유통단지는 총 15만평에 6,138개 상가 점포와 업무시설, 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운드제로플러스공법 신기술 지정에 이어 신제품으로 등록



국제유가 60~70달러로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바닥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운드제로플러스' 공법이 실용신안 및 특허 등록에 이어 2005년 건설교통부 신기술로 지정받고 올 10월 산업자원부 신제품으로도 인증받았다.

당사에서는 바닥충격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이전인 1999년부터 청도맥반석과 공동으로 완충재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2년 EVA를 기본 재료로 하는 '사운드제로'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후 지속적인 보완 및 새로운 개념의 접근으로 2004년 '사운드제로플러스'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본 신기술은 경량기포콘크리트 습식공정을 생략함에 따라 기존보다 5일 정도의 공기단축 효과가 있으며, 완충성능이 우수한 발포EVA를 사용함으로써 경량충격음 저감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단열성능을 가진 경질우레탄폼을 바닥 단열재로 사용함으로써 30% 이상의 난방에너지 절감효과 및 10% 내외의 난방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최고 성능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인정받기 위하여 제품 성능을 개선시키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제2회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표창 수상



11월 3일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승준 국제투자본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안국진 소장(SIOCA현장), 곽동훈 부장(해외토목부)이 건교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여 받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구 해외건설협회장을 비롯해 건설업계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해외건설 진출 확대 및 플랜트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해외건설 발전에 공이 큰 건설인 37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표창 수여도 있었다.

김승준 본부장은 1982년 입사 이래 래플즈 시티, 팜 하얏트 리젠시 호텔 등 다양한 해외 공사에 참가했으며, 동남아지역본부 근무시는 4개국 14건 총공사비 미화 총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외건설 발전에 기여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해외사업 총괄 임원직을 담당하며 해외시장 재진출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 회사가 해외 건설 명가로 재도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다.

또한 1982년 입사 이래 래플즈 시티, 캐피탈 타워, 창미 라이즈 아파트 등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호텔, 오피스, 아파트의 건설에 참가했던 안국진 소장은 최근 플라자 인도네시아 확장공사, 오션 프론트 아파트 등의 입찰팀장으로 해외 수주에 크게 기여했으며, 현재는 오션 프론트 아파트(SIOCA) 현장소장을 담당하고 있다. 1984년 입사 이래 다양한 해외 토목공사를 담당해 온 곽동훈 부장도 인도 세컨드 내셔널 하이웨이(2nd National Highway)와 서드 내셔널 하이웨이(3rd National Highway)의 수주에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서드 내셔널 하이웨이에 현장소장으로 부임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준공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우리 회사는 올 한 해 3개국 7건 공사 총 공사금액 미화 3억 9천 6백만 달러로 국내업체 중 해외 토목·건설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파주 - 고양 연계관로(2차 구간) 열배관 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플랜트 부문을 신설한 이래 첫 번째 플랜트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우리 회사가 주관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은 11월 1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파주-고양 연계관로(2차 구간) 열배관 공사를 67억원(우리 지분 70%, 47억원)에 수주했다.

파주열병합발전소와 일산열병합발전소를 연결하는 연계관로

중 덕이-일산 구간(총연장 7,476m, 직경 850mm)의 이 열배관 공사가 완공되면 두 발전소가 주변 지역 가정에 제공하고 있는 온수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황에 따라 한 발전소만 온수 작업을 가동하는 등 유기적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지난 9월 1일 토목본부 내 소속됐던 플랜트 사업부를 분리해 플랜트 부문으로 승격시킨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국내 플랜트 수주로 기반을 다지며 중동을 비롯한 해외 플랜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우리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10월 27일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되는 총공사비 4,277억원(우리 지분 18%, 77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전라북도 익산시 대장촌리에서 완주군 상관면 하신리까지의 기존선을 철거하고 총연장 34.1km의 복선전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사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4개월이며, 운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20년이다.

이 사업은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BTL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공공시설의 준공 후 운영을 담당하며 사용료를 징수하는 BTO 방식과는 달리 준공한 공공시설을 정부기관에 임대하고 정기적인 임대료를 통해 공사비를 회수하게 됨으로써 사업 안정성이 뛰어나다.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제1권역 현장 기공식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31일 충북 옥천군 옥천면 옥각리에 위치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제1권역 현장(소장·김승구 부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손주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한용택 옥천군수를 비롯 지역 상하수도사업 관계자 등 외빈과 우리 회사의 서호모 상무, 인근 현장소장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안전기원제,

사업현황보고, 옥천군수 식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축사, 시삽, 다과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 현장은 충청북도 보은군~경상북도 상주시 일대 기존 하수처리장 9개소의 개보수 및 마을하수도 54개소, 하수관거 총 232km의 신설 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착공해 2010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IBIS 엠버서더 호텔 하자보수 종결관련 감사패 받아



우리 회사의 고객서비스부(부장·황종한 부장)가 지난 11월 16일 IBIS 엠버서더 호텔로 부터 성실하게 유지관리와 보수공사를 진행해 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노보텔 엠버서더 독산동과 IBIS 엠버서더 호텔 신설 공사 및 소피텔 엠버서더 개보수 공사 등의 성공적 시공을 통해 한국 엠버서더 호텔 그룹과 쌓아온 신뢰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고객서비스부는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의 하자보증기간동안 발주처의 요구에 더욱더 친절하고 완벽한 A/S로 마무리했다.

한편 IBIS엠버서더 호텔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지하 6층 지상 14층 316객실의 고급 호텔로, 2003년 8월 준공됐다.



Adieu 2006년! Welcome 2007년!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기술 쌍용』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2007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쌍용』은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새로운 기술과 공법 등을 신속·정확히 소개하고,

각 분야의 건설인들이 현장의 소중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술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습니다.



원고접수처 건설기술 I 쌍용을 함께 만드는 편집·실무위원들

편집위원장 I 최장식 전무(7064, choijangsik@ssyenc.com)

부 위 원 장 I 홍종우 부장(7701, jwhong@ssyenc.com)

기술개발부 I 장동운 차장(7727, safety@ssyenc.com)

유창은 대리(7728, ycu1213@ssyenc.com)

기 획 부 I 최세영 팀장(7117, chltpdud@ssyenc.com)

김지현 대리(7113, judy@ssyenc.com)

토목기술부 I 이기환 차장(7772, ikhjin@ssyenc.com)

김창수 과장(7767, conshot@ssyen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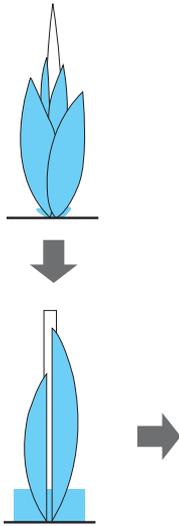
2006년 겨울호 통권 제 41호(비매품)

건설기술 쌍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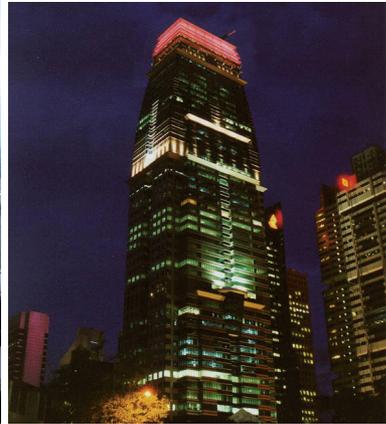
발행인 김병호 I 발행일 2006. 12. 11 I 발행처 쌍용건설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 I 홈페이지 www.ssyenc.com www.ssyapt.co.kr 편집디자인 (주)온오프의꿈(02-2268-9672)

건설기술 I 쌍용은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에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간되며, 발간일 2개월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편집에 반영됩니다

Capital tower in Singapore



야간에 바라보면 설계 모티브인 꽃봉우리가 만개한 모습, 또는 타오르는 불빛을 연상케 한다.



- 위치 : Robinson Road, Singapore
- 발주처 : Capitalland Commercial Ltd.
- 건축설계 : RSP Architects Planners & Engineering Pte. Ltd.
- 구조설계 : Maunsell Consultants Pte. Ltd.
- 기전설계 : Parsons Brinkerhof Consultants Pte. Ltd.
- 연면적 : 134,014m² (대지면적 7,110m²)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2층 Office Building
- 공사기간 : 1997. 2-2000. 6

21세기 싱가포르의 고도 성장과 국가 선진화를 만개한 꽃봉우리로 형상화한 것으로, 금융기관 및 정부부처가 밀집한 싱가포르의 월 스트리트, 로빈슨가에 위치하고 있다. 싱가포르 내의 대형 프로젝트로는 유일하게 기획, 설계 및 시공의 모든 과정이 내국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 이들의 자부심의 상징이다.

최상의 결과를 이루기 위한 발주처, 감독관의 의지와 시공자인 당사의 열정이 'Team Harmony' 로 합쳐져 디자인, 품질시공, 독특한 입면 등에서 최고의 결과를 낳았고 이후 크고 작은 상들을 모두 거머쥐었다.

오늘도 우리 상용인들은 싱가포르의 휴양 선 센토사의 오션프린트콘도를 네 번째로 최자인 구(膾炙人口) 월 랜드마크 건물로 완성키 위하여 정열을 쏟아 붓고 있다.



12개 Type에 수백 개의 Non-Typical Curtain Wall



17m 높이의 Pent House Pin Fixing Frameless Glass Wall



Cable Suspended Pin Fixing Structural Glass Canopy 등



Urban Plaza & Water Feature



Main Lobby, Retail, Other Facilities

두바이 왕실도 사막의 꽃에 감탄하다

세계 고급건축물의 경연장 두바이 -

이 곳을 상징하는 3대 호텔 가운데 2곳인 에미리트 타워 호텔과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쌍용건설에 의해 완성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1만 객실이 넘는 최고급 호텔과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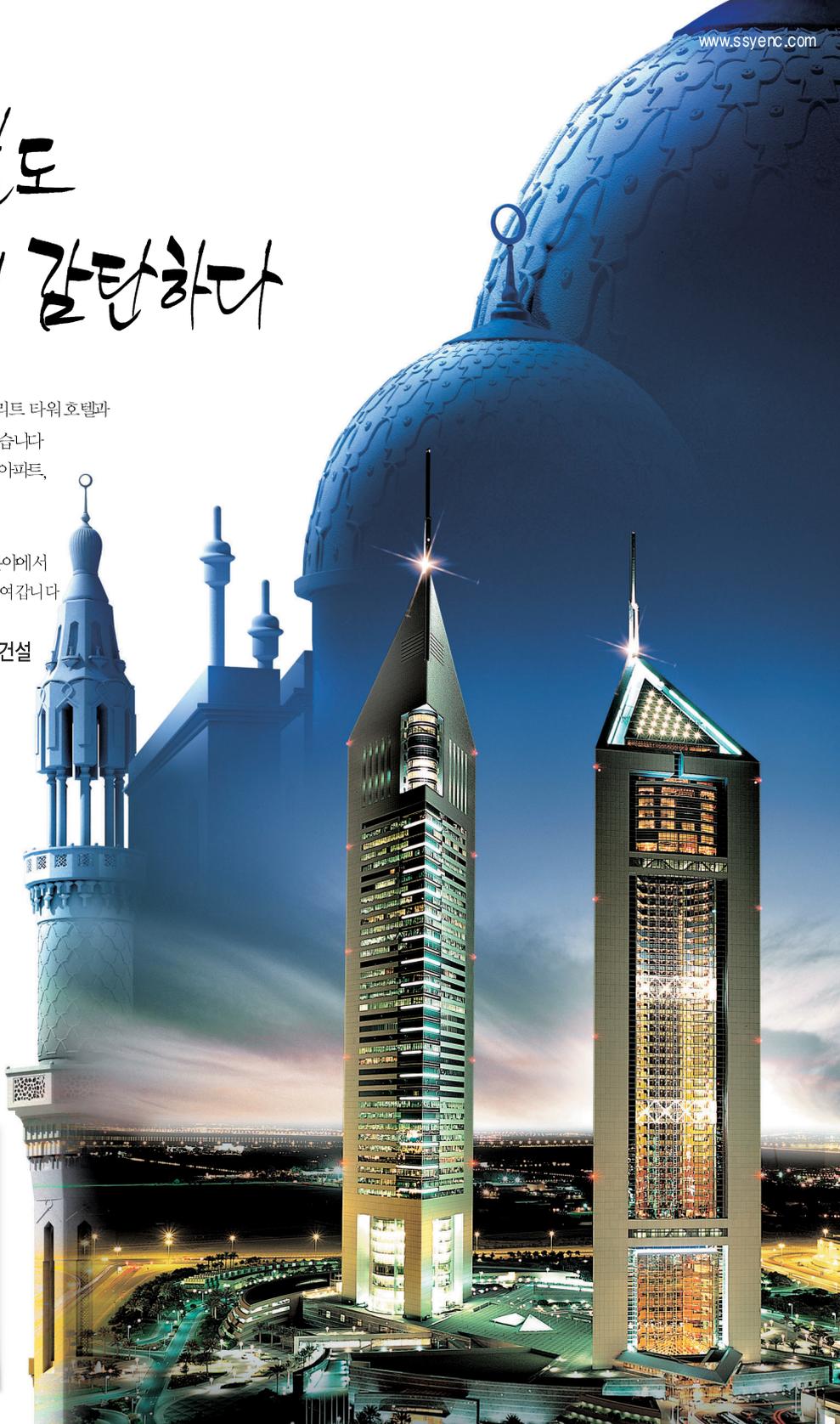
인텔리전트 빌딩, 첨단 병원 등을 시공하며

호텔 시공실적 세계 2위를 기록한 쌍용건설-

세계 유명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고급 건축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높여갑니다

해외 고급건축 시공실적 **1** 위 기업-쌍용건설



Story of 에미리트 타워 호텔(두바이)

유럽의 베식스웨이는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당시 호텔 시공실적 세계 2위에 오른 쌍용건설의 명성을 듣고 공동 참여를 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동의 홍콩으로 불리는 두바이의 상징물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성을 쌓아온 쌍용건설은 이후, 전세계 하얏트 호텔 중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두바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단독 시공함으로써 국내 건설사들이 두바이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바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싱가포르 래플즈 시티



싱가포르 선텍시티



싱가포르 래플즈 호텔



발리 인터콘티넨탈 호텔



자카르타 그랜드 하얏트 호텔



괌 하얏트 리젠시 호텔

